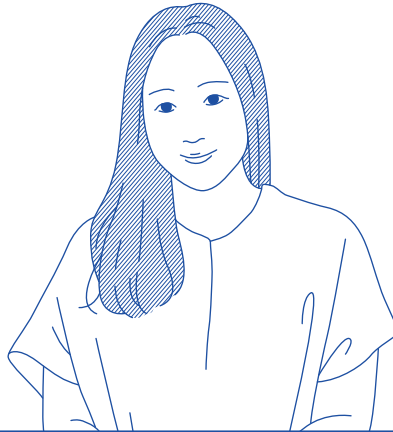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7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자살 유가족에게 희망을



상담심리사 이인희 막시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의 영적, 물질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체성사로 초대하시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14,16)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월간 가톨릭 비타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펼칩니다.** 직장에서 또는 소소한 일상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살이란 단어는 ‘분노’, ‘억울함’,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부모가, 자식이 자살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갖다가도 불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때로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인정할 수도 없는 소식이 현실임을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되면, 마음이 움츠러들어 그동안 맺었던 인간관계마저 끊어내고 맙니다. 상실의 아픔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삶은 자살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는 유가족들에게 ‘삶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이인희(막시마) 상담심리사입니다. 그녀는 2013년 시작된 자살 유가족 프로그램 ‘해바라기 슬픔돌봄 모임’을 진행하며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슬픔돌봄 모임”은 소중한 가족을 자살로 잃어버린 이들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자살 유가족은 보통 다시 예전의 삶을 회복하기가 힘들기에 이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야겠다는 시대적 사명에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상반기, 하반기에 모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살, 죽음은 유가족들에게 상실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가족은 ‘만약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의문 속에 남겨집니다. 충격과 고통, 그리움, 슬픔 등을 겪으며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한국에서 1년에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13만 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35.8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별의 슬픔을 짊어져야 하는 가족과 주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 자살자 주변 평균 7명이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습니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교회 안팎의 냉랭한 시각으로 자살을 숨기고 사회와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는 냉담하기도 합니다. 자살은 죄라는 인식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살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자살예방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

내 주변 소중한 사람과 연결돼 있다고 느낄 때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살하기 전에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밥도 잘 먹지 않고,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징후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채야 합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수십, 수천, 수만 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살생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상담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

전화상담 1599-3079 (월~금, 10시~17시)

면접상담 02)318-3079 (월~금, 10시~16시)

대상 우울하고 슬픈 기분, 부정적인 생각,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즐거움 감퇴, 체중의 갑작스런 증가나 감소, 불면증 혹은 수면과다, 무가치감, 죄책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심리적 증상으로 힘드신 분

상담비 무료/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 결정 (주 1회 50분)

자살생각과 관련해 ‘즉시 위기상담’이 필요하시면 위기상담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를 이용해 주시고, 면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자살예방센터(02-318-3079)로 문의해 주세요.

설립 30주년 준비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른 한마음한몸운동의 현재와 미래

일시 2017년 10월 25일(수) 13:00~16:30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고스트홀

주최·주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 가톨릭신문,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KCOC(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예수회 캄보디아 미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모금가협회, 한국인권재단,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 NPO스쿨

문의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위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부는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시작되어
다가오는 2018년이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본부 설립부터 현재까지 분야별 활동을 성찰해 보고,
향후 한마음한몸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설립 30주년 준비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해 주시어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진행: 이정민 비오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13:00~13:30 접수

13:30~13:40 개회 및 인사말씀 유경춘 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기조강연>

13:40~14:00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역사와 정성환 신부(前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성체성사의 정신

국제협력 / 기부문화 분야

14:00~15:05	1. 주제발표: 본부 국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2. 주제발표: 본부 나눔운동의 현황과 전망 3. 패널발표(2명) 4. 질의 및 응답	1. 권오창 신부(예수회 캄보디아 미션 반티프리업 센터장) 2. 박동호 신부(前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3. 이성훈 교수(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재현 대표(NPO스쿨 대표)
-------------	---	--

15:05~15:25 휴식

생명운동 / 자살예방 분야

15:25~16:25	1. 주제발표: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본부 생명나눔운동의 현황과 전망 2. 주제발표: 자살(예방)에 대한 본부의 역할과 전망 3. 패널발표(2명) 4. 질의 및 응답	1. 지영현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2. 오대일 신부(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 김태규 교수(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은행장) 황순찬 센터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	--	--

16:25~16:30 폐회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

띠앗누리 24기를 모집합니다



마음을 열면 지구촌 이웃들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가 캄보디아에서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지역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지구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아가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공고 및 접수 11/19(일)까지 | www.obos.or.kr 지원서 다운 및
이메일(obos.caritasseoul@gmail.com) 접수

모집 인원 15명 내외

오리엔테이션 12/23(토) @명동 가톨릭회관

배움터 17년 12/30(토), 18년 1/6(토), 1/13(토), 1/20(토),
@명동 가톨릭회관

현지 활동 18년 1/23(화)~2/6(화), 14박 15일,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 및 캄땡고 마을

국내체험 및 해단식 2/9(금) @명동 가톨릭회관

관련 문의 02)727-2292

(상세내용은 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 참조)

2017 생명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고, 일어날 수 있게 안아주고, 마음 깊이 공감해 주는 어머니 같은 품을 지닌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인생은 누구도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폐 끼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서로에게 곁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우리가 받은 삶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콘서트를 통해 그간 잊고 살았던 우리 시대 공동체의 참뜻을 되새기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출연진	조한혜정 교수, 박기호 신부, 가톨릭문화기획 imd
출연가수	정태춘&박은옥, 여행스케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공연 일시	2017년 11월 2일(목) 19:00
공연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서울성모병원내)
주최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가톨릭평화방송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2) 318-3079

※ ‘열린 공연’으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2017 한·일 자살예방심포지엄

“자살 사별자, 슬픔 속 희망 찾기”

2013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살예방사업의 현황과 교회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진행했던 『한·일 자살예방심포지엄』이 어느 새 다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자살 사별자들에 대한 돌봄과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나누고 향후 더 나은 실천방법을 고민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절망의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가려는 우리의 소망이 나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이 사회와 전 인류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14:00~17:00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주최·주관	Caritas Seoul, Caritas Japan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2) 2265-2953

멕시코 대지진 긴급구호 특별모금

멕시코의 이웃들에게 지진보다 더 강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지난 9월 7일과 19일 멕시코에서는 리히터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전역에 걸쳐 수백 명에 달하는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그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멕시코 지진 피해자들의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자금 미화 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9/22~10/31) 긴급구호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로 무력함과 절망감에 빠진 멕시코에 진심 어린 위로와 인류애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지진으로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진보다 더 강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모아주세요.

멕시코 지진피해복구 긴급구호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5-785-11911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ARS 모금참여 060-700-1117(한 통화당 3,000원) | 문의 02)774-3488



생애첫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람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외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첫 번째 기부

강태원 2016.09.06생 父 강도형 母 박시영 | **김수연** 2016.09.24생 父 김지민 母 최한나 | **김시환 다윗** 2016.09.08생 父 김희중 母 최효원 | **김재원** 2016.10.04생 父 김진문 母 김민혜 | **김효원** 2016.09.20생 父 김준형 母 문보현 | **박상웅 프란치스코** 2016.10.07생 父 박민우 母 김희연 | **박지환** 2017.04.18생 父 박성연 母 박은혜 | **백승우 도미니코** 2016.09.19생 父 백덕현 母 허윤주 | **변우성 마태오** 2015.09.14생 父 변장웅 母 심혜진 | **손연우** 2016.09.28생 父 손철수 母 강근혜 | **양서운 라파엘라** 2016.02.18생 父 양한모 母 이시인 | **오윤동(태영)** 2017.09.06생 父 오경현 母 이혜경 | **유라오 니콜라오** 2016.09.07생 父 유용환 母 우미령 | **유용현** 2016.09.11생 父 유태곤 母 송은령 | **유지민 루도비코** 2002.12.22생 父 유옥연 母 김혜영 | **윤이나** 2016.11.11생 父 윤병훈 母 박혜영 | **윤지완** 2016.09.11생 父 윤세민 母 신소현 | **이서현** 2017.08.02생 父 이도영 母 김유경 | **이승우 리노** 2016.09.12생 父 이승재 母 김성진 | **이예은** 2015.11.14생 父 이재혁 母 남은정 | **이예진 마리아** 2016.09.08생 父 이건우 母 문문옥희 | **이제이** 2016.09.17생 父 이승주 母 양효신 | **장서는 라파엘라** 2016.09.10생 父 장창규 母 이나경 | **정하운 스텔라** 2016.10.11생 父 정남용 母 김후정 | **조이안 엘리사벳** 2016.10.05생 父 조장현 母 허인선 | **최서희** 2017.06.24생 父 최광인 母 장세미 | **최주원** 2017.05.14생 父 최효진 母 김윤아 | **한나경** 2016.09.01생 父 한승훈 母 김미란 | **황유건 제노** 2016.09.02생 父 황진환 母 김구슬

두 번째 기부

김범준 아우구스티노 2014.02.12생 父 김준형 母 문보현 | **김세인 아네스** 2014.10.23생 父 김태윤 母 최지혜 | **김예랑** 2015.09.07생 父 김광휘 母 박지영 | **김은빈 스텔라** 2013.08.12생 父 김진우 母 이나래 | **맹서호 다윗** 2015.09.11생 父 맹상운 母 임세영 | **민재현** 2015.10.10생 父 민경학 母 양세진 | **박서우 그레고리오** 2015.09.13생 父 박영수 母 박찬진 | **박시환** 2014.09.07생 父 박정배 母 정명화 | **송민유 안나** 2015.09.03생 父 송오영 母 임연희 | **유용준 요한** 2013.12.08생 父 유태곤 母 송은령 | **이은솔 도로테아** 2016.08.17생 父 이상우 母 강경아 | **이정원** 2016.09.14생 父 이성은 母 박혜윤 | **이준승 사도요한** 2015.10.17생 父 이태민 母 장정희 | **이지호 소피아** 2015.09.30생 父 이영우 母 김윤정 | **정병준** 2017.07.20생 父 정한민 母 김수정 | **정선우 엘리사벳** 2011.11.02생 父 정휘동 母 최혜원 | **정소람 스텔라** 2015.09.26생 父 정순건 母 박은정 | **정유나 소화데레사** 2015.10.02생 父 정용준 母 김혜림 | **조윤상 미카엘** 2015.09.02생 父 조한필 母 배운경 | **최정안** 2012.05.02생 父 최동진 母 유시영 | **최준우** 2014.08.06생 父 최동진 母 유시영 | **허은** 2016.09.06생 父 허용 母 안혜라

세 번째 기부

고다연 빅토리아 2014.09.22생 父 고대우 母 서나영 | **기성록 라파엘** 2016.09.19생 父 기석권 母 박주원 | **서우재** 2016.04.20생 父 서범석 母 이경미 | **손승우** 2014.09.03생 父 손철수 母 강근혜 | **용성재 프란치스코** 2014.10.02생 父 용인순 母 정익진 | **유승우 바오로** 2008.09.16생 父 유재형 母 배효진 | **이연우** 2015.09.03생 父 이정호 母 임화란 | **추도윤 레오** 2014.09.04생 父 추재호 母 김지원 | **홍이승 소피아** 2014.09.16생 父 홍성호 母 이민영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구현진 제달도 | 故 아기천사 별이 | 故 조정갑 요한

감사 기부

김경은 베드로 & 박은선 마리아 | 김소연 카타리나 건강회복 기념 | 김태원 마카엘 취업 기념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1005-684-077777

•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454-005324-13-04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습니다. 나눔가게·기업 신청 시 안내자료를 보내드리고, 1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 현재 약 10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43호점	서울 강북 도봉로 (주)서윤홍쇼핑
244호점	서울 강남 신사동 세브블레스(7bless)
245호점	서울 노원 동일로 워킹온더블라우즈
246호점	서울 서초 서초동 우즈스뮤직앤리퍼
247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비엔나 안경
248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가람 호프
249호점	서울 성동 행당동 황금기든
250호점	경기 안성 서인동 김창숙부띠끄
251호점	서울 동대문 한천로 카페다미안
252호점	경기 화성 내향로 제일축산
253호점	경기 의정부 동일로 수락산편백원
254호점	경북 영주 변영로 롯데리아 영주점
255호점	서울 강남 일원동 삼성정문약국
256호점	서울 중랑 망우로 웰드세탁소
257호점	서울 서대문 충정로 e-아름다운치과
258호점	서울 마포 상암산로 휴아시스
259호점	경기 성남 수정로 612 어학원
260호점	서울 중랑 검재로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261호점	경기 광명 오리로 (주)비타에드
262호점	제주 남광로 제주 해밀
263호점	경기 인천 다남로 카페 로즈스텔라점원
264호점	서울 은평 증산로 (주)한강FNT
265호점	서울 성동 금호로 화림식당
266호점	서울 마포 와우산로 예그린하우스 고시원
267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오달소
268호점	서울 강남 학동로 루트헬치과
269호점	서울 서초 양재대로 서초우술해법셀파수학
270호점	서울 서초 효령로 와이드아바웃
271호점	서울 구로 남부순환로 광명수산
272호점	서울 중랑 용마산로 서울이비인후과
273호점	경남 김해 진영읍 뮤엔경여 진영 서어지 어학원
274호점	서울 강남 학동로 권한의원
275호점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길 효례교육

※ 기준: 2016. 10. ~ 2017. 9.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54,727명

2017. 9. 27.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 참여** 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140-001-982286
국민은행 083-01-0309-453
KEB하나은행 061-22-03709-4
농협 386-01-015833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문의: 1599-생명살이(3042)



함께하는 사회사목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미사 안내

서울대교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목)에는 경찰사목위원회 주관으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는 주제 미사가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진행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정보문화· 생명나눔센터

'가톨릭정보문화·생명나눔센터'에서는 생명나눔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가톨릭교회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문의 1599-3042

일시	10월 26일(목), 19시
장소	명동대성당
주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경찰사목위원회

활동내용	• 장기기증 상담 및 접수 • 조혈모세포기증 상담 및 접수 • 기타 생명나눔 관련 상담 • 명동성당 및 성지 안내(주말), 교회정보 제공, 외국어봉사자운영(주말/영어, 일어, 중국어)
운영시간	• 월, 화: 10:00~18:30 • 수~일: 10:00~19:00 (법정공휴일 외 연중무휴) • 점심시간: 13:00~14:00
장소	명동성당 1898광장 지하 1층